

전북도, 결식우리아동 지원 협약 체결

전북도 등 6개 협약기관 '행복두끼 프로젝트' 참여 민관협력 통해 도내 667명 아동급식 사회 안전망 구축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나래(주)' 등 5개 기관과 함께 결식우리아동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 E&S, 자치분권포럼,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와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 최강종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자치분권포럼 이명연 이사장, 전라북도의회 강

동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결식우리아동 14개 시·군 667명의 아동에게 1년간 총 176,088식으로 약 4억 사업비를 투입해 주 5일분 양질의 밑반찬이 가정으로 개별 배송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연간 1만8,000여명 아동을 대상으로 1식 8,000원씩 급식을 지원하고 2024년도에는 1식 9,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

어 이번 협약에 따라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기업의 지원 종료 후 지자체 급식 지원 대상 편입 등 결식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급식 공급을 위한 사업비 및 기부물품을 마련해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사업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운영 사무국인 행복나래(주)는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며,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복안전망으로 114개 기업, 73개 지자체, 30만 명의 시민이 협력하고 있다.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한 급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들의 모임으로 도시락 제조, 배송 등 급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식단관리, 모니터링 위생관리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여러 기관이 협력해 아동들의 끼니공백을 지속가능하게 해결한다는 것이 아주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결식우리아동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권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소중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나래(주)' 등 5개 기관과 함께 결식우리아동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2023 우수 여행 후기 뽑는다

농촌관광 온라인 플랫폼 '참참' 연말 이벤트 진행

전북도와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연말 결산 이벤트로 '2023 우수 여행 후기 베스트 어워즈'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전라북도 농촌관광 온라인 플랫폼 '참참'은 체험과 숙박을 원스톱으로 예약·결제 가능한 플랫폼으로 현재 300여 가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참참'은 △이달의 추천 여행 프로모션(월별 기획전) △여행 경비 할인 지원(체험 최대 50%, 숙박 최대 30% 할인 혜택) △신상 입점 상품 체험단 운영(기획상품) △전북 방방곡곡 글로벌 메이트(외국인 대상) △귀농·귀촌인 경험으로 고민해결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프로모션)를 통해 올 한해 전국 1만 7천여 명이 전북으로 농촌여행을 다녀가도록 홍보했으며,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는 70만

명에 달해 전라북도 농촌관광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연말 이벤트는 온라인 플랫폼 '참참'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어워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성해 주신 후기 중 선정하여 작성자에게는 숙박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농촌여행참참(www.chamchamtri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한 해 동안 전라북도 농촌관광을 이용해 주신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참참'과 함께 연말 맞이 여행 후기 어워즈를 진행하게 됐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도 하고, 혜택도 받는 기회를 많은 소비자가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안전생활지킴이 우수활동 사례발표회

전북도, 민간단체 우수한 경험·지식 공유의 장 마련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도내 안전관련 민간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군 안전생활지킴이 우수활동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안전과 관련해 민간단체들의 우수활동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것으로 우수활동 도지사 표창, 2023년 재난안전 민간단체 주요성과 발표, 단체별 우수사례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도내 민간단체들 중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며 노력한 7개 단체 및 개인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단체 수상은 △지역 내 안전위해요소 확산 방지분야 완주군 안전보안관, △안전문화 생활화 실천분야 군산시 안전모니터봉사단,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완주군 재난안전민간예찰단, △재난복구 분야 전라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 수상했다.

개인 수상은 △화재예방·진압 및 인명구조 전개한 전주덕진 의용소방대연합회 강정석님, △방범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에 공헌한 전라북도 자율방범대연합회 이윤구님, △2023년 집중호우 시 호우피해 복구를 수행한 35사단 김현수님이 수상했다.

이어서, 2023년 재난안전 민간단체의 재난안전 활동의 주요 성과 발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수행한 다양한 안전 활동들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혜택을 가져왔는지를 소개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단체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표창을 받은 7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우수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단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생활밀착형 재난대응 태세 확립을 다짐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변효석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아 기쁘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른 단체들의 우수 활동을 접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더욱 생활화 되도록 안전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여러분들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태조 이성계 전북역사문화자산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관련 전문가 및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도민들 참여

'태조 이성계 전북역사문화자산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3시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이성계리더십센터(센터장 정세량)가 공동 주최했고, 전북도, 전라북도의회, 전주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주페이퍼, (주)정석캐미칼, 전주시 세대동중요원, 전북미래혁신포럼이 후원했다.

이동희 관장은 "이성계 장군이 1380년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이후, 전북은 조선왕실의 뿌리이자 조선건국의 꿈이 시작된 곳이다"고 설명하면서 "태조 이성계의 역사유적을 바탕으로 그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노력과 함께 국왕 초상화 전문 박물관, 황

산대첩 역사관 등을 조성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중수 교수는 "조선 건국은 민족의 식 함양이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지 면적이 3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하면서 "전북에서 태동된 조선은 이후 국가통제체제를 확립하면서 양인(良人)이 확대되고, 정치 참여층이 전국화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상호 토론시간에는 이정덕 전북대 명예 교수의 '태조 이성계를 활용한

전주시 도시 브랜드 전략', 이진관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장의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전라북도 활용 전략', 박용근 전북도원의 '전북 동부권 태조 이성계 지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전략', 서배원 전주시 왕의궁원 프로젝트추진단장의 '왕의궁원과 태조 이성계 역사자원 활용방안', 장중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원 연구위원의 '태조 이성계 전담 건립 추진 방안'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2023 전북 중소기업 융합·교류 프라자 개최

전북도와 (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는 7일 전주 엔타워컨벤션웨딩홀에서 2023년 전북 중소기업 융합·교류 프라자를 개최했다.

혁신 성과물을 전시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협업을 통해 개방형 혁신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3점, 전라북도지사표창 3점 등 총 11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전라북도지사표창에는 △(주)세라믹덴탈솔루션 최근호 대표이사, △진티솔로프(주) 신민철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융합교류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개방형 혁신의 성과를 창출한 포상기업, 핵심기술의 융합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 등 주제별 11개 부스로 구성된 성과전시관 운영했다.

/김재훈 기자

1~2월(방학특강) 과정

스피치·웃음코칭·긴장해소

○ 현대인의 필수과목에 참여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① 매주 1회 야간수업 ② 도민 누구나 가능
③ 특강 등록금 15만원(2개월분) ④ 전문강사지도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전화 : 231 - 6669, 010 - 7304 - 5665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및 송년문화공연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서 합동으로 장애인복지, 인권,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24회 행사를 엽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①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② 장소 :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③ 주요행사 : 개회식, 물품전달식, 송년문화공연, 행운권추첨 등

문의 : 286 - 6678, 팩스 : 287 - 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